

# 시기 정함에 관한 경고의 말씀

## 1. 성경말씀에서

마 24:36-39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 24:42-44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행 1:7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 2. 예언의 신에서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

"1844 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흠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에 구애 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치므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며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마쳐질 것이다."(초기 75)

**시기에 기초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없을 것**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복해서 경고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시기에 기초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이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정해진 시기를 알 수 없다."—리뷰 앤드 헤랄드, 1892. 3. 22.

**그저 지나가 버리게 될 것**

"1844 년의 시기가 지나간 후, 나는 언제나 다음과 같이 증언해 왔다.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시기를 정하는 일이 거듭되겠지만, **그저 지나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기를 정하는 일의 영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이상을 통하여 명확한 시기를 보고 그것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언을 했을 것 같으면, 이 증언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반드시 환난의 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지

는 모든 시기는 그대로 지나쳐 버리고 말 것이라고 써서 출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분명히, 이 말씀을 출판한 이래 지난 30 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기를 정함으로 내가 책임지고 있는 자들과 동일한 정죄 아래 내 자신을 두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나는 1844 년에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시기가 지나간 후인 1845 년에 이르기까지는 이상(異象)이 없었다. 그 때에, 나는 여기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증언은 모든 세밀한 점까지 성취되지 않았는가? 일요일 준수 재림교도들은 여러 차례 시기를 정하였다.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시기를 정함으로써 사기를 회복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셨다. 1844 년의 시기가 지나가도 기대했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참된 예언적 시기를 거절하고, 예언의 성취를 무시했다. 그들이 진리를 거절하자, 원수는 그들을 강력하게 미혹하기 위하여 능력을 행사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믿게 했다. **시기에 대한 큰 시험은 1843 년과 1844 년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 때 이후로 시기를 정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 스스로 기만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해 왔다.**”(1 증언, 72-73)

### 사단의 목적에 잘 부합될 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전파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근거가 되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 곧 1844 년 가을에 2300 주야가 마친다는 사실은 아무 의심 없이 입증된다. 그러나 예언적 기간의 시작과 끝에 관한 새로운 날짜를 발견하고자 거듭거듭 노력하고 그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론을 세우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해석을 위하여 기울인 모든 노력을 모독하는 일이다.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시간을 정하는 일은 하면수록 또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 널리 보급되면 될수록 더욱 사단의 목적에 잘 부합될 뿐**이다. 그 시기가 지나가자 사단은 재림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독하도록 자극하여 1843 년과 1844 년에 있는 큰 재림운동에 치욕을 끼친다. 그리하여 그 오류를 고집하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나치게 먼 장래에 속한 일로 결정할 것이다. 그들은 그릇된 안일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다 지나갈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쟁투, 457)

###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고 반대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여, **그분의 재림에 관해서나** 그분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약속하신 그 어떤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실 **시기를 정하는 어떤 이들을 조심하도록 하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행 1:7).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매우 열심인 것처럼 보일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이론들을 세상과 교회 앞에 제시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 오류를 섞어 놓을 때, 그들의 기별은 기만적인 것이 될 것이며 영혼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을 대항하고 반대하여야 한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요, 거짓 것에 진리의 도장을 찍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목사, 55)

### 거짓 선지자들이 시기를 정함:

"자신들을 재림교인이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정했던 사람들이었다. 거듭거듭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기가 정해졌으나 우리 주께서 오실 명확한 때는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선언되었다. 그 결과는 계속 실패였다. 구원의 후사를 위해 봉사하는 천사들조차도 그 날이나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 날이나 시간은 사람들에게나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반복해서 정해진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해 세상은 **더욱 결정적인 불신의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혐오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속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입증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진리에서 돌이키고 있다.

**참람되게도** 정해진 **시기를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영혼의 대적을 기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로 인해 그리스도교 신앙보다는 **불신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절을 이끌어 내고, **거기에 거짓 해석을 보태 자신들의 입장을 명백히 입증하는 듯이 보이는 일련의 논증들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과 그들이 영감의 언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진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왜곡했다**. 이러한 실수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평판이 나빠지게 했다**. 재림교인들은 모든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종들은 잠잠해서는 안된다. 예언 가운데 미리 말해진 징조들은 우리 주변에서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열성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백성들에게 감명을 끼치기 위해, **정확한 때를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관점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 백성들의 감정이 분기되고 그들의 두려움이 일어날지 모르나 그들은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흥분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반복되었듯이 시간에 의해 움직인 사람들은 냉담함과 어두움과,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고, 어떤 큰 흥분 없이는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기가 불가능하다**. 4T 307-308

**"때와 기한은 ...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행 1:3-7).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정확한 시기를** 알기 위하여 궁금해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으므로 그 때와 시기를 저들이 알 수 없을 것이** 라고 말씀하셨다.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저들이 알아야만 할 가장 중대한 사실이 아니었다. 저들은 다만 **주님을 순종하는 생애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깨어서 일할 뿐**이었다. 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제자들이 살던 당시에 성공적인 신앙적 체험에 긴요했

던 요소는 오늘날에도 긴요한 것이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7, 8)“(1 기별, 185-186)

“이 사업은 우리들도 참여해야 할 사업이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자극적인 계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대신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면서 현재 당면한 기회들을 지혜롭게 선용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권한에만 두시고 인간에게 밝히시지 않으신 때와 시기에 관하여** 공론을 펴는 일에 우리들의 정신력을 소모하는 **대신에 성령의 지배에 우리들 자신을 복종시키고 현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인간적인 견해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생명의 떡을 진리를 모르고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1 기별, 186)

“사단은 인간의 정신을, 현대 진리에서 관심을 돌리게 할 이론들과 추정(推定)들로 가득 채우며 이 세상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아시는 구세주께서는 공론에 몰두하며 주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은 사실들에 대하여** 캐묻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꾸중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에게 중대한 진리를 나누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저들에게 당신의 교훈과 지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저들의 당면한 의무를 수행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주님의 기별들은 저들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하나의 명령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오직 진리를 저희 마음에 고정시켜 저들로 영생을 얻게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일어날 큰 사건들에 대하여 특별한 시기를 발표함으로 인간을 놀라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은 자를 교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서는 자극을 주거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호기심에 대한 자극은** 오히려 어떤 진기한 대상이나 신비스런 사물에 대한 욕구를 왕성케 할 뿐이다. 주님께서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근본 목적은 인간이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고, 순종과 참된 거룩함의 도리에 있어서 향상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다만 인간이 일상 생활의 필요에 적절히 쓸 수 있을 만큼의 교훈을 주셨으며 또한 일용할 분량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주도록 진리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았으며 다만 제사장들과 교법사들의 거짓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흐려지고 잊어버려진 진리들을 밝히 깨닫게 하신 것뿐이다. 예수님께는 거룩한 진리의 구슬들을 본래 부조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절차를 따라 제자리에 옮겨 놓으셨다. 보배로운 교훈들을 가르치신 후에 당신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밝히 기억케 하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복음의 단순성을 계속적으로 거스릴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독창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사람들을 영적인 황홀경 속으로 이끌어들이며 현재의 경험 상태를 변화시켜 보려고 열망한다. **현대 진리의 신성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의 현 상태가 크게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

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탄원하며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품성이 변화되도록 간구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끈질긴 능력을 활용해야 하며 성실한 노력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우리는 참된 성실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는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1 기별, 186-188)

###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없을 것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저들이 그 넓이와 깊이와 그 가치를 별로 모르고 있는 진리를 주셨으며, 이와 같은 상태는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들 역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위대성과 아름다움을 식별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만일 우리가 영적 지식에 있어서 자라기만 한다면 우리가 거의 생각지 못했던 방면에 진리가 계발되고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진리는 결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만 두신 때와 시기를 아는 일에 상상의 재료가 되도록 계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거듭거듭 시기 설정에 관한 경고의 말을 해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1 기별, 188)

### 거짓된 자극

“주님께서는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고 시기 문제로 인해서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시기 문제는 결코 시험 거리가 되지 않을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시기에 관한 문제를 전파하는 데서 거짓된 자극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상 세 천사의 기별은 본래의 주장대로 기별을 고수할 수 있으며 기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았으며 세 천사의 기별이 큰 권세로 나아가 그 사업을 완수하고 의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을 보았다.” (1 기별, 188)

###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

“나는 신자들에게 이 사람의 이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었으며 그가 예언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당신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을까? -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 사이에 빚어질 사태는 장차 올 큰 날에 서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이다. 우리는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데서 신앙 생애를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신 때와 시기에 관한 공론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장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오는 때에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해야 할 것이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므로 그 때가 정확히 언제 올 것인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1 년, 2 년

혹은 5 년 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10 년이나 20 년 후에도 오실지 말지 하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주님의 재림을 지체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1 기별, 189)

### 시기를 밝히시지 않으심

“하나님께서 언제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을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 것이다. 깨어 일하며 기다리고 멸망하여 가는 인간의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행하여야 하며 주님의 노선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써 당신의 은사들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것이다. 사단은 이 때를 위한 놀라운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매일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꾸며놓은 특별한 기별을 줄 것이다.”(1 기별, 191)

### 인간의 혀를 통하여 선포하지 않으실 것

“언제쯤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빛을 받은 것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어온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대답은 오직 지금은 해가지기 전에 일해야 할 때이며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기별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깨어 일하며 기다려야 할 때이다. 주님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나타내며 그 증거는 가장 결정적이어서 모든 영혼들이 마음에 진리를 심어 진리가 생애를 주장하고 품성을 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님의 영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진리로서 영혼을 감동시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는 날이 저물기 전인 바로 지금이다. 그러나 은혜의 기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라는 명령은 아무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쓴 어떤 인간의 입술에도 그런 기별을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 총회에서 숨기기로 한 것을 인간의 혀를 통하여 선포하지 않으실 것이다.(리뷰 앤드 헤랄드, 1894. 10. 9)”(1 기별, 192)

“나는 성령의 부여 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와 합세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받은 증언이 없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 불빛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영혼과 품성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하찮은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므로 낭비되었는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행 3:19) — (리뷰 앤드 헤랄드, 1892. 3. 29).”(1 기별, 192)

“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그리스도께서는 그 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 분은 온세계가 다 회개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라고 말씀하신다. RH 1913, 11, 13 (AG 353)

### 참된 기별은 시기를 정하지 않음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신다든가 혹은 오시지 않는다는 등 **시기를 정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참된 기별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의 강림이 5 년 혹은 10 년 혹은 20 년 동안 지체될 것이라고 말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기별이며 공중에 나는 세 천사가 전파하고 있는 그 기별이다. 지금 해야 할 사업은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타락한 죄악 세상에 경고해 주는 일이다. 새로운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 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2 기별, 113-114)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 30:5-6)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사 8:20)

### 3. 선구자들의 증언

**1872 년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 원칙 선언문 중 제 9 번에서:**

**9. 1844 년 재림교인들의 실수는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어날 사건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 재림 때까지 이르는 예언적인 시기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긴 예언적 시기는 다니엘 8:14 절의 2300 주야로써, 그 해에 끝났으며, 성소의 정결 사건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

**A. T. Jones 목사:**

**“시기를 정하는 우매함은 진리의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도 유포되고 있다.”**  
{November 8, 1898 ATJ, ARSH 728.1}

**“THE folly of time setting is still rife among those who have not a knowledge of the truth.”** {November 8, 1898 ATJ, ARSH 728.1}

**J.N. 러프보로우 목사:**

**“구세주의 교훈은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재림 교회의 자세이다. 그들은 모든 예언적인 기간이 2300 주야의 끝인 1844 년 10 월 22 일에 마쳐졌으므로 그들은 시기를 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1904 JNL, LDT 188.1}

“The admonition of the Saviour is to "watch." And this is the attitude of Seventh-day Adventists. They believe all prophetic time closed Oct. 22, 1844, with the closing of the twenty-three hundred days; hence they have had no part in time-setting.” {1904 JNL, LDT 188.1}

#### **우라이야 스미스 목사:**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예언적인 기간이 없다.** 그러나 성소가 정결케 되는 비교적 신속한 일이 재림 전에 앞선다. 이것은 **시기 정하는 우매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1898 UrS, LUJ 275.3}

“It shows that no prophetic period reaches to the coming of the Lord, but only to the comparatively short work called the "cleansing of the sanctuary," which just precedes that coming. It thus saves us from the folly of time-setting.” {1898 UrS, LUJ 275.3}

#### **왜고너 목사:**

“**시기를 정하는 것은 불신의 가장 대표적인 소산물이다.**” {March 10, 1887 EJW, SITI 151.6}

“This time-setting is a most fruitful source of unbelief.” {March 10, 1887 EJW, SITI 151.6}

#### **제임스 화잇(화잇 부인 남편)목사:**

“**시기 정하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파괴할 것이다.**” {1880 JW, LIFSK 221.1}

“The influence of this time-setting will be to destroy the faith of God's people.” {1880 JW, LIFSK 221.1}